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7호 2024년 11월 17일(나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두드럭조개(*Aculamprotula coreana*)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12,1-3

화답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히브리서 10,11-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3,24-32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픈카톡

재림 (再臨, 齎任, 다시 오심,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말김)

가흥동 본당 주임
류성태 안드레아 신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주시려 우리를 불러모으신 하느님은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시며, 그때에는 분명한 하늘의 징표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즉,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실 것이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그분의 도래는 재앙이 아닌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새싹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아는 것처럼, 단순히 종말의 순간과 시간을 알아차리라는 것을 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기에 날마다 충실히 살며 그 끝의 순간에도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개별적으로 대면할 것이고, 그 만남으로 우리 각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종말을 겪어보지 못했으며, 죽음을 겪고 지금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이를 명확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이 세상 삶의 끝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간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그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말에는 이 세상의 순리와 질서를 역행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징표가 나타날 것이며, 이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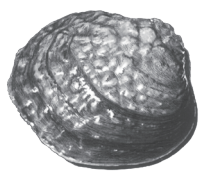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을 때, 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내 마음에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담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랑 넘치는 일들 많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지켜주세요 <두드럭조개>

표지 사진 설명



두드럭조개 껍데기는 두껍고 둥글며 단단합니다. 표면에는 흑 모양의 돌기들이 뒤쪽 가장자리로 뻗어있습니다. 주 서식지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며 하상에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곳입니다. 과거 한강, 대동강, 금강에서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금강의 2~3곳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 유종입니다. 한때는 두드럭조개 껍데기를 단추나 공예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드럭조개 유생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물고기 몸에 붙어 성장한 후 떨어져 나가 바닥의 침전물 속에 자신을 숨기며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조개 속에 알을 낳아 치어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받습니다. 조개와 물고기의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을 보면서 인간과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림(君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생의 정신일 것입니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교수회 수요묵상모임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영식 도마

안동교구 가톨릭교수회는 1989년에 안동대학교, 상지전문대학, 경북전문대학, 안동전문대학, 안동공업전문대학 소속 교수들로 결성되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교수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부활절 전에 전국가톨릭교수회 피정, 7월 초에 영남 4개 교구 가톨릭교수회 세미나, 10월 중에 안동교구 가톨릭교수회 총회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안동대학교 가톨릭교수회는 위와 같은 교구차원의 활동 외에 2000년부터 매주 수요묵상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가톨릭교수회 회원의 약 20%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전 8:30부터 1시간 동안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모임에서 묵상하였던 주요 내용을 보면, '성서 통독', '성서 100주간', '야곱의 우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복음의 기쁨', '세상의 매듭을 푸는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 '매일미사' 등이며, 현재는 '영적 일기와 함께하는 내 하루의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끊임 없이 '수요묵상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단 1회의 결석도 없이 헌신해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대학교 가톨릭교수회와 가톨릭학생회는 매년 매학기 개강미사와 종강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대학 캠퍼스 내에 가톨릭 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활동이 미진한 부분은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회 사목방문

11월 8일(금)에 교구청에서 <교수회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안동시청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텃밭을 만들어 모종을 심고 식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계림동 본당 견진성사

11월 3일(주일)에 계림동 본당에서(주임신부-권중희 베드로) <견진성사>(33명)가 있었습니다.



사제회의 · 사제평의회

11월 4일(월)~ 5일(화)에 놓은 수련원에서 <사제회의 · 사제평의회>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소개와 안내에 대한 서울대교구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11월 10일(주일)에 서문동 본당에서(주임신부-임준기 다미아노) <견진성사>(55명)가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 · 교정 · 보철치료 · 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 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지 위해 사용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 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영덕상회

동광어시장 내 1호, 2호. 각종건어물
신천옥 바오로, 최정혜 데레사
영덕군 강구면 대게로 108-1
전국 택배
T.010-3453-0205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문동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T. 054-859-6040







교 구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1. 17(주일) 10:30
장 소: 가은본당 성유공소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일 시: 11. 17(주일) 14:00
장 소: 농은 수련원(성직자 묘지)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10회 선중회원·지도신부 합동 위령미사

일 시: 11. 27(수) 11:00
장 소: 구담 본당
문 의: 054-855-0127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2. 6(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 삶> 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공모합니다.

작품 내용 및 구성:
사진에 담긴 의미,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간단한 글
(혹은 사진과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오픈카톡
메일- sa3119@nate.com



▶오픈카톡



안동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인 두봉 주교
재방송- 11. 30(토) 오전 10:30
▶ "한국인 두봉 주교" 검색

cpbc 특별대담 인구 소멸, 교회는 어떻게?

방 송 시 간:
본) 11. 25(월) 17:00
재) 11. 27(수) 22:00
11. 30(토) 10:00
12. 01(일) 19:30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님 출연

제 단 체

제8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일 시: 11. 25(월)~ 12. 1(주일)
장 소: 안동 시립박물관 별관전시실

남성 제47차 꾸르실료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건강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수 도 회 · 피 정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12월엔 12. 7(토) 11:00 종신서원에
초대합니다.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회

일 시: 매주 금요일 21:00~ 토요일 03:00
강 사: 전국 유명강사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버 스: 조치원역 19:00 출발
가경 버스터미널 19:20 출발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월 금요일 20:00~ 01:00
금요일 18:00~ 토요일 15:00 파견미사
강 사: 김완식 요셉, 한연흠 심부님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

보통맛: 1kg-38,000원, 매운맛: 1kg- 39,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1kg- 40,000원,
매운맛: 1kg- 41,000원
주문 전화: 010-3813-4405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2024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겨울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

신청기간: 11.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총 23가지 수강료 할인 유형(최대 100%
환급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HIVE센터(851-3007~8/lead.csj.ac.kr)

노인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1. 23(토), 12. 7(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7:30, 09:00~ 13:00
내 용: 노인심리지원, 상담 기법 스킬 향상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영유아 문제 행동지도 전문가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1. 22(금), 23(토) 13:00~ 18:00
(총 2일 10시간)
내 용: 영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상호작용 모래놀이치료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재직자 무료 교육 훈련과정 협의 문의 환영